

慢性腎臟病의 診斷

만성신부전은 다른 대부분의 질환과 마찬가지로 병력, 증상, 이학적 소견, 혈액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비롯한 검사소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된다. 병력상 당뇨병, 전신성 흥반성 낭창증 등의 전신질환 병력, 날, 수은 등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력이나 진통제 남용경력, 또는 신장결핵 등의 감염병이나 빈번한 신우신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와 가족증의 일원이 다낭종신 등의 유전성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장병을 우선 의심하는데 도움을 준다. 증상으로 암뇨, 혈뇨, 다뇨, 펌뇨, 다음, 배뇨 이상 등의 요관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요관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남성에서는 반드시 항문검사로 전립선의 크기를 측정하여 전립선비대로 인한 암박유무를 관찰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골반계 종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말기 신부전 환자

표 1. 만성신부전의 치료 가능한 원인

폐색
방광(bladder neck)
전립선 비대
복부수술후 합병증
결석
고칼슘혈증 신병증
간질성 신염
(analgesic abuse, lead, cadmium)
다발성 골수종
양측성 신동맥 협착
악성 신경학증
낭창성 신염
통풍신병증
칼리콜립증(이뇨제, 하제남용)

표 2. 치료 가능한 신실질 질환

급성 고혈압성 신병증
진통제 남용에 의한 신병증
Hemolytic-uremic 증후군
고칼슘혈증 신병증
낭창성 신염
다발성 골수종
신우신염
신정체혈전증
Wegener씨 육아종증
수산염 신병증
(Oxalate nephropathy)

의 경우 폐부종과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이나 심한 오심 및 구토, 전신부종 등을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예가 많지만 신부전은 머리에서 발달까지 모든 기관을 침범하는 전신질환이므로 매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쇠약감, 무력감, 소양감, 성욕감퇴 등 전신증상과 식욕상실, 오심, 구토, 흉통, 호흡곤란, 부종, 손발저림, 불면이나 정신질증력 상실, 이유 모르게 멍이 잘든다든지 하는 여러증상을 보인다. 이학적 검사상 고혈압, 망막이상, 심장비대시에도 신기능 이상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혈액검사상 빙혈이 있으면 신장에서 조혈에 반드시 필요한 흐르문을 분비하므로 신기능 이상도 의심해 보아야하며 소변검사상 단백뇨, 다행의 적혈구를 보일 때 신기능을 검사해 보아야하고 이유없는 대사성 산

인지 아니면 만성 진행성신질환인지 감별해야하며 전자의 경우 악화요인을 찾아 치료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본래의 질환이 고정될 수 있는 것인지(표-1) 아니면 질환 경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치료될 수 있는 합병증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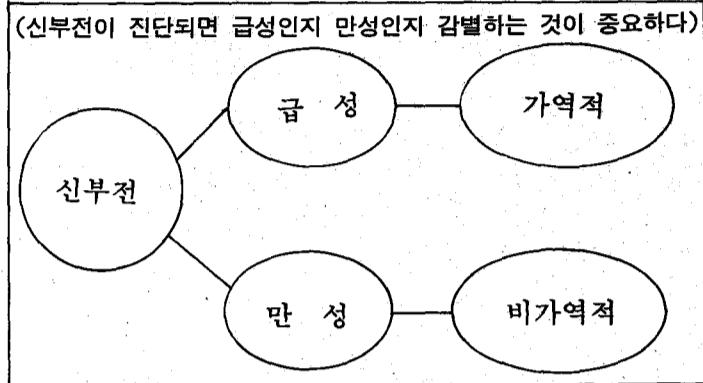
신부전이 만성이라고 진단하려면 오랜기간 혈중요소질소와 혈청 크레아티닌이 지속적으로 높았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그 이전의 임상기록을 알 수는 없으므로 환자의 증상, x-ray소견, 그리고 생화학 소견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혈청 크레아티닌과 혈중 요소질소가 각각 10mg%와 100mg% 이상이면 급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대개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을 경험하게 되지만 반면에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장의 크기가 정상이라도 만성신부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신조직생검이 필요하다. 신장의 크기외에 또 다른 만성도를 시사하는 소견은 골 x-ray 검사상 신성골이영양증을 보이거나 병적골절이 있거나 고인산혈증, 저칼슘혈증, 빙혈 등도 지속적으로 신부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만성도의 지표이다.

만성신부전과 급성신부전 감별 다음에는 요독증의 원인이 신장자체에 있는 것인지 신장외에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신장외의 원인에 의한 요독증은 신전과 신후로 나눌 수 있다.

金 明 宰

〈慶熙医大 内科 교수〉



病歷·症狀·이학적소견등을 종합하여 診斷後 治療指標삼아야

男性의 경우 항문검사통해 前立腺비대로 인한 壓迫여부觀察

부전환자는 혈청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가 10mg%와 100mg%보다 월씬 더 높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천천히 증가하는 동안 적용하여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질환 없이 갑작스런 오심, 구토, 무력감, 식욕부진 등이 있고 혈청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가 높다면 먼저 급성신부전을 생각해야 한다. 다낭종신이나 알포트씨증후군 같은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으면 먼저 같은 질환의 만성경과를 생각한다. 또한 신장의 크기가 만성과 급성을 구별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단순복부촬영, 정맥신우조영술, 복부초음파검사로 신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복부초음파는 간편하며 신장의 크기외에도 수신증이나 낭종 등을 찾아내는데 유용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신장의 크기가 작아져 있으면 대개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외없는 규칙은 없듯이 다낭종신,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골수종, 당뇨병성신증, 피부경화증에 의한 신부전은 만성경과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신장의 크기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클 수도 있다.

위의 병력,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소견 등으로 신부전이 진단되면 다음 단계로 신부전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급성인 경우 가역적인 즉 치유될 수 있는 신부전을 의미하며 만성이 라면 대개 비가역적인 신부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성 신부전은 신부전이 감염, 요로폐색, 탈수 등의 악화인자에 의해 급성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

시하였다. 이때 신혈관조영술과 신조직생검이 도움을 준다. 신혈관조영술은 특히 결절성 다발성동맥염이나 심한 고혈압에 이차적인 신질환의 의심되면 시행한다.

신조직생검은 말가신질환 형태까지 진행하기 전에는 가장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을 제공하지만 신장의 크기가 매우 작아져거나 사구체여과율이 20ml/min이하인 경우에는 대개 시행하지 않으며 만성신부전에서는 신생검이 치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시행하지 않는다. 신생검의 금기는 출혈성 경향, 심한 고혈압, 세균뇨증, 수신증, 또 매우 비대한 환자이며 정상크기의 신장이고 신증후군이나 특히 전신성 흥반성 낭창같은 교원성 질환, 세뇨관 간질성 질환, 급속진행성사구체 신염에서는 신생검이 유용하다.

결론적으로 만성신부전은 자세한 병력,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소견 등을 서로 잘 관련시켜 진단하고 신부전이 만성인지 급성인지 감별하여 치료될 수 있는 원인이나 악화요인, 합병증을 찾아 치료의 지표를 삼도록 한다.

최소형 혈당측정기 《글루코스코트-II》

GT-4320

당뇨인의 필수품

혈당검사는 식사, 운동, 투약 등 조절에 큰 도움을 주며 합병증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사용법이 간단하여 쉽게 검사할 수 있으며 한방울의 혈액으로 가장 빠르게 (0~1,000mg/dl) 측정되는 최소형 측정기이다.

은행 신용카드 할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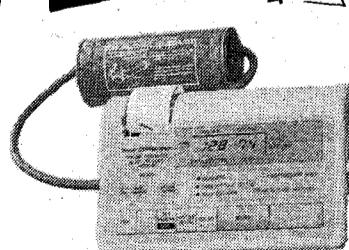
※주부저울, 체중기, 혈압기 등

■ 제조원: DIC Kyoto DAIIICHI Kagaku Co., Ltd.

■ 판매원: 정우양행

■ 서울 276-0277 · 부산 42-8193 · 대구 623-8511
276-0278 · 276-0285

SHARP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국내유일
■ MB-800
샤프 컴퓨터 전자혈압계



■ MB-600A

- 가임대 자동판정, 수축 원터치 Key
- 최고혈압 설정 기능
- 맥박 측정 기능

당뇨신문

“소망”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보내실곳: 대한당뇨협회

서울·중구 을지로 3가 295-4
양지빌딩 201호
TEL: 265-9822